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9월 20일(금)

尹 대통령, 체코 상원의장 및 주지사 접견(9.20)

-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성공을 위한 체코 상원 및
비소치나·남모라비아 주차원의 협력 의사 확인 -
- 한-체코 미래 지향적 협력 발전을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 강조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20, 금) 체코 상원의사당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1990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 지정학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며 경제성장을 이룩한 두 나라가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비스트르칠 의장이 과거 주지사를 역임한 비소치나주(州)에 건설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한-체코 미래 지향적 협력의 이정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과학기술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체코 상원도 관심을 갖고 양국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비스트르칠 의장은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환영하고, 제조업 및 기술강국인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제적 협력 효과가 대단히 높으면서, 향후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한-체코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원전 협력을 매개로 양국의 상생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한국의 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스트르칠 의장은 한국과 체코 같은 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원 차원에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스트르첵 의장은 가족들과 직접 김치를 담가 먹을 정도로 한식을 좋아하고 태권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접견 행사에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위치하게 될 지역인 비소치나주의 슈렉(Schrek) 주지사와 최인근 지역인 남모라비아주의 그롤리흐(Grollich) 주지사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들 주지사들은 원전 사업에 있어 지역의 역할이 큰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한국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진출이 성공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체코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가치 공유국으로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및 참석 의원과 러북 군사협력 및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끝>